

# 애국지사들 '쓸쓸한 노년'

### 41가구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생계 곤란'

### 비 줄줄 새는 판잣집서 장애 부인과 생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나라를 잃은 슬픔입니다. 가난과 자식을 많이 가르치지 못한 고통은 고통 중에도 못됩니다.”

일제시대 일본땅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최창모(86·광주시 동구 학동)옹의 집은 작고 초라했다. 낡고 오래된데다 재개발 지구로 묶여있어 비가 오면 방안까지 물이 샌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컷발도 대문이나 안쪽 기둥에 달아져 있었다. 최옹은 매달 190만원 가량의 보상금 등으로 장애를 가진 부인과 살고 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만난 최옹은 “동지들과 지하실에서 만든 선전물을 들고, 목숨 걸고 일본 발거리를 뛰어다니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가난하고, 허름한 집에 산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광복 64주년을 맞았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일부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13일 광주지방보훈청이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239명의 현황을 본

석한 결과,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1가구(17%), 최저생계비 132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이른바 '생계곤란층'도 8가구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670만원을 웃도는 상층은 30가구에 불과했으며 '생활안정층'(330만~670만원)은 92가구, 생계유지층(164만~336만원)은 109가구로 나타났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내손으로 그렸어요” 1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손수 그린 태극기를 펼쳐들며 자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내일 64주년 광복절 ... 모범수 58명 가석방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축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애국지사과 종교계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며, 이날 오전 9시50분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진행된다. 경축식에서는 광주 출신인 고 김중호 선생이 일제강점하에서 해남지역에서 태극기를 제작·배포하는 등 독립만세 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 결과는?

###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 첫 접수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주민 분쟁이 처음으로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 등이 없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주지역 모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피신청인과 조정을 위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만간 양 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초 단독주택 이웃끼리 소음 문제로 분쟁 조정을 신청, 피신청인 쪽에서 조정을 거부해 종결된 사례가 있으나, 공

동주택 주민끼리 조정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처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은 부실 건축 논란 속에 아파트 건설사와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03년 구성된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진동 피해 보상 등 매년 3~4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환경분쟁에 대해 알선·조정·재정(1억원 이하)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심사판주재 하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화해로 종결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관사앞까지 찾아와 시위해서야”

### 시민단체, 도교육감 아파트서 ... 주민과 마찰

목포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조치에 반발, 전남도교육감의 관사가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목포 A아파트 입주민들과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전남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시국선언 및 일제고사 반대교사에 대한 중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전교조와 함께 ‘징계 철회’ 운동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목포민중연대 등이 지난 4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감장전 전남도교육감의 관사가 있는 목포 A아파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

이면서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개인이 모여서는 사적인 공간(아파트) 앞에서 날마다 시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항의도 해봤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도 교육감이 면담이나 대화를 거절함에 따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사 앞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를 해당 단체에 알려 자체 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1분 해질 19시 23분 달돋이 23시 42분 달질 13시 47분

**별별 더위**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밤늦게 남해안 지역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맑은뒤 흐림	22/32℃
목포	구름맑음	23/30℃
여수	맑은뒤 흐림	23/28℃
완도	구름맑음	23/31℃
구례	맑은뒤 흐림	22/33℃
해남	맑은뒤 흐림	22/30℃
장흥	구름맑음	23/31℃
고흥	맑은뒤 흐림	22/30℃
순천	맑은뒤 흐림	23/32℃
영광	맑음	22/31℃
진도	구름맑음	23/32℃
전주	맑은뒤 흐림	22/32℃
남원	맑은뒤 흐림	21/32℃
목성	구름맑음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0.5~1.0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1.0~2.0m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목포 07:08 00: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26:11 12: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여수 01:16 08:0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15:05 21:0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2	23/33	22/33	22/32	22/32	23/30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원캠퍼스 학부(교) 605-1114 / 대학원 605-1115

## 20일까지 무더위

말복인 13일 찾아온 폭염을 시작으로 당분간 광주·전남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고온(도양음)과 보성(문덕면)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구례 33.8도, 화순 33.4도, 순천 33도, 광주 32.4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순천과 구례, 화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30도를 웃도는 이번 더위는 비가 예상되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신입생 모집**

**신원대학교**

신원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학금, 생활비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원대학교 입학처**

문의: 02-1234-5678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교육 기관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아이엘리시아 교육센터**

문의: 02-1234-5678

**연기/남새로 민원요청 YHB가 해결**

YHB는 민원요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기, 남새 등 다양한 민원요청을 지원합니다.

**YHB 서비스**

문의: 02-1234-5678